



“개국 10년, 도약 체제를 구축하자”

— DMB • FM라디오 사업 성취에 주력 —

표원수 사장은 “지난해가 YTN 도약의 터전을 마련한 해였다면, 올해는 그 터전위에 구체적으로 도약의 체제를 구축하는 해로 만들자”라고 강조하고, YTN의 도약을 가능케 해줄 제도로 DMB와 FM라디오를 언급하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성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사장은 FM라디오 사업이 해를 넘겨 아쉬운 점도 있지만 DMB사업과 함께 모두 정상적인 궤도를 달려가고 있어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표사장은 지난 3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지금 미디어환경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머지않아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 새로운 질서의 맨 앞쪽에 YTN이 서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사장은 지난해에 사옥 이전과 서울타워 새 단장 등 복잡한 일을 추진하면서도 회사경영은 건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 2004년이 YTN으로서는 가슴 뿌듯한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표 사장은 새해에는 국제정세와

경제상황 등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자칫 YTN도약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축적해온 우리의 저력과 노사간의 신뢰를 통해 이미 탄력을 받기 시작한 YTN의 성장세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표 사장은 마지막으로 개국10년되는 2005년을 ‘YTN의 해’로 만들기 위한 대장정에 다함께 힘을 모아 나서자고 강조했다



■ 비전코리아, 희망을 열자! - 2005년 방송아젠다



YTN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새해 화두로 삼았다. YTN은 「비전 코리아, 희망을 열자」를 새해 아젠다로 설정하고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YTN은 경제회생과 국민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회생 해법 모색과 계층간·세대간 대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 주 5일 근무제 실시



YTN 노사는 1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앞당겨 시행한다는 데 합의하고 12월 15일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 등은 추후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YTN 노사는 이와 함께 2005년 임금을 기본급 기준 4% 인상하기로 했다.

1월호 목차

- 121 ▶ YTN에 바란다 - 양질의 뉴스로 사회적 책임 다해야
- 131 ▶ 사장 신년사 - 도약의 체제를 구축하는 한해로
- 141 ▶ 노조위원장 신년사 - 발전을 위해선 노·사는 하나
- 151 ▶ 탈북자진입 특종기 - 사무실 카메라가 있었기에
- 151 ▶ 떠오르는 동북아 시대 - 현지 명함 빌려 가세요
- 161 ▶ 신약 제작기 - 영원히 못 잡는다
- 171 ▶ 동남아 출장기 - 신왕사천축국전
- 171 ▶ 2004 최고의 돌발영상 / 사진으로 본 2004
- 181 ▶ YTN 대상 수상기 - 모두의 힘으로
- ▶ 통신원이 보는 YTN - 저버릴 수 없는 YTN

개국10년 기획 시리즈 - YTN에 바란다 ①

양질의 뉴스로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10년 전 케이블TV 출범 당시 24시간 뉴스전문 채널로서 출범한 YTN은, 당시 이라크 전쟁을 생생하게 보도하여 전 세계로 부터 주목과 찬사를 받은 CNN을 곧잘 연상시키곤 했다. 특히, 지상파방송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시기이므로 특정 방송 분야를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케이블방송의 출범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하물며 국내의 사건, 사고들을 시시각각으로 심층 취재하여 보도하는 뉴스전문 채널이야말로 더 말할 나위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뉴미디어의 총아라는 찬사를 받은 케이블TV는 그리 오래되지 않아 전송망 포설 등의 인프라 조기 구축 실패와 그에 따른 가입자 확보 부진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IMF 관리체제라는 국가적 위기

에 봉착했을 때에는 좌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었다. 특히, 당시 무엇보다도 안타까웠던 것은 많은 제작인력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방송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사장된 데다, 더 이상 누구도 방송콘텐츠 제작에 의욕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생각건대, YTN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보도전문편성채널은 프로그램 제작에 무수히 많은 인력 등이 투입되지만, 그 활용도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여타 일반 채널에 비해 더욱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그동안 뼈를 깎는 노력과 사명감으로 이 땅의 뉴스전문 채널을 지켜온 YTN과 직원들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하여 마음으로 치하를 드린다.

주지하다시피 10년이 지난 현재, 방송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변화는 진행될 것이다. 위성방송의 출범,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으로의 전환 및 DMC,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도입 등과 방송의 디지털화는 YTN을 포함한 PP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유통창구를 제공한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제, 방송법상 의무송신규정의 논란 등 기존의 채널정책 전반

에 대하여는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출범 10년을 맞이하는 YTN에 바라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보도전문편성채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려면, 사회적 공기로서 사회 구성원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면서 건전하고 바른 여론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여론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의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저널리즘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방향제시 기능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미디어법인으로서 수용자의 방송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질의 뉴스 제공은 당연한 명제이며, 지금까지의 시청행태와 제약을 뛰어넘는 콘텐츠 제공(DMB 등), 양방향서비스의 활발한 제공, 해외 한인교포, 나아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뉴스 제공 등도 멀티미디어시대의 YTN이 수행해야 할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이제 방송 10돌을 맞아 성숙기에 들어선 YTN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YTN단신

YTN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5위

YTN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4.1% 지지를 얻어 5위로 나타났다. 1위는 KBS(21%) 2위는MBC(14.9%), 그 다음으로는 조선일보(8.9%), 동아일보(5.1%), 중앙일보(3.6%), 오마이뉴스(3.4%), 한겨레신문(3.3%), SBS(2.4%), 프레시안(0.4%) 등이 상위 10위권을 차지하는 언론매체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12월 1일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8백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다.

YTN 시청자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



YTN 시청자위원들이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조동성 YTN 시청자위원장은 12월 달 회의를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월 23일 성금을 전달하고 조그마한 정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TN 시청자위원회는 앞으로 소의

된 이웃에 관한 내용이 보다 많이 방송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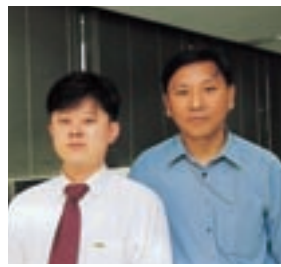
광고주협회, YTN 초청 설명회



한국광고주협회는 12월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등 협회 회원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YTN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고 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살리기,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YTN이 뉴스전문채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규 기자 보도영상 편집부문 우수상 수상

김인규(왼쪽) 기자가 칼을 만드는 장인으로 한국TV카메라기자대상 시상식에서 편집부문 우수상을 12월 10일 수상했다. 칼을 만드는 장인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했던 '사인감'을 복원하는 장인과 정신을 담은 영상물이다. 김학묵 사우는 카메라 기자협회의 발전과 방송영상 발전에 이바



지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2년 만에 치러진 카메라기자협회 YTN지회장 재선에 선출됐다.

노종면 장민수 기자, BJC 보도상 특별상 수상



문중선 기동취재부장, 장민수, 노종면, 황성수 부국장 노종면, 장민수 기자가 '돌발영상' 제작으로 한국방송기자클럽의 2004년 BJC 보도상 특별상을 12월 13일 수상했다. 돌발영상은 2003년 4월부터 정치권 등의 움직임을 비판적인 시각과 현상화면 중심으로 보도해 정치 기사와 방송 보도의 새로운 양식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승재 기자 대한언론상 수상



김승재 기자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 신설 부두 등 대형 지방공사의 문제점을 보도해 대한언론상을 12월 14일 수상했다. 김승재 기자는 부산 신항만 등 대형 공사의 배수 공사가 부

김윤섭 팀장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



실하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해 건설교통부의 특별 감시를 이끌어내고 연약 지방 공사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윤섭 팀장은 2004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합동정책토론회'를 SO협회의 화와 공동 기획하여 공정선거문화 정착을 제고했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제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게시판

■ 연말포상

- 올해의 YTN 대상 김승재 기동취재팀
- 올해의 최우수 프로그램상 흥성보 차장대우 제작2팀 「생활속의 무술」
- 특별상 보도국 선거팀 / 국제부 동시동역실 / 마케팅국 / 미디어국 해외방송팀
- 공로상 : 김해중 차장대우 감사실, 최성호 전략기획국, 김한성 기획관리부, 정애숙 앵커팀, 기내경 그래픽팀, 이동현 차장 정치부, 이병식 사회2부, 한정호 제작2팀, 김태동 차장대우 기술관리부, 이병문 제작기술부, 김해열 중계부, 백상기 매체관리팀, 박기용

문화사업팀, 이주창 해외방송팀, 차원석 · 김영은 타워사업국

- 창의상 : 심중남 기획관리부, 박소영 편집1팀, 강성웅 편집2팀, 손영범 그래픽팀, 김지현 문화과학부, 김명숙 제작1팀, 최경순 디지털기획부, 김택탁 제작기술부, 박선우 중계부
- 모범사원상 : 권오진 차장대우 편성운영부, 최홍숙 · 서민원 총무부, 박철원 기동취재팀, 김지영 · 지순한 편집3팀, 류중섭 경제부, 박상남 차장대우 · 박순표 사회1부, 유성래 대구지국, 김범환 광주지국, 정영환 대전지국, 한민정 문화과학부, 김상의 스포츠부, 이화용 차장대우 영상취재팀, 김학묵 영상편집팀, 노옥상 영상특집팀, 임종열 차장 제작1

팀, 유희성 기술관리부, 이상무 디지털기획부, 임준석 · 권혁근 제작기술부, 최병관 중계부, 김남식 마케팅1부, 김연기 마케팅2부, 이정완 문화사업팀, 한은규 · 김인옥 타워사업국

■ 4분기 포상

- 특종상 금상 김태현 북경지국장 - 탈북자 20명 베이징 한국영사부 건물 진입 보도
- 특종상 은상 박희천 사회1부 - 국보급 최고 총통 김찰청서 낮잠 보도
- 특종상 동상
- 황순욱 사회1부 - 서초서 비리경찰 보도
- 이대건 사회1부 - 경찰의 비인권적 수사행태 고발 보도
- 임수근 사회2부 - 송합차 자동차세 3년간 50% 경감 보

도

- 우수프로그램상 <사람과자동차> 제작팀 YTN특별기획 「사람과 자동차」
- 공로상 장영길 미국 망명희망 탈북자 2명 제3국 체포 제보 고광 북경지국 탈북자 20명 베이징 한국영사부 건물 진입과정 촬영

■ 퇴사

한미정(마케팅2부) 12, 24 / 신경희(편집2팀) 12, 31

■ 전보

윤경민 국제부 동경지국장 준비 12, 23

사장 신년사

도약의 체제를 구축하는 한해로



사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갑신년 새해 아침에 우리가 신년인사를 나누면서 사옥 이전과 YTN의 발전을 이야기 하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또 다시 새해 아침입니다.

올유년 새해에 사우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2004년은 가슴 뿌듯한 한 해였습니다. 이곳 YTN 타워로 사옥이전을 성공리에 마쳤고, 방송 이전도 깔끔하게 이루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도 갖게 되었고, 서울타워도 새 단장을 위한 준비 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복잡한 일을 추진하면서도 회사 경영은 건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가슴 뿌듯하게 여겨집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특히 사옥이전 때 사우들이 보여준 애사심과 헌신의 정신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는 3월이었는데도 참으로 쌀렁하고 추웠지만, 여러분들의 열정이 남대문 일대를 훈훈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들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사옥 이전, 경영상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회사가 성공을 거두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특히 FM 라디오가 해를 넘겼고, DMB도 아직은 낭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지금 제 궤도를 정상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주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지난해에 장담했던 그 '깜짝 놀랄 결과'가 어디 갔느냐고 따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주가 폭등의 짜릿함을 우리가 맛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시장에서의 퇴출 우려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주가에서도 낭보가 있을 것임을 다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YTN 사우 여러분, 지난해가 YTN 도약의 터전을 마련한 해였다면, 올해는 그 터전 위에 구체적으로 도약의 체제를 구축하는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YTN의 도약을 가능케 해줄 제도, 현재로서 그것은 다름 아닌 DMB와 FM 라디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많은 사우들이 작년부턴 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어 환경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

이 속에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로부터 머지않아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맨 앞쪽에 우리 YTN이 서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아침 다시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오래 동안 흘려온 우리의 땀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칙에 의해 잘 알고 있습니다.

YTN 사우 여러분, 새해에 우리의 희망은 밝지만,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그렇게 쾌청하지만은 않습니다. 국제 정세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흐린 경제전망은 자칫 YTN 도약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탄력을 받은 우리의 성장세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극심한 어려움을 견뎌낸 우리의 저력이 YTN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발전에 관련한 영원한 동지적 관계에 있는 노사간의 신뢰가 그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YTN 사우 여러분, 2005년을 YTN의 해로 만들기 위한 대장정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모읍시다. 회사와 함께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발전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올유년 새해 아침 사장

2005비전 YTN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강갑출 보도국장

갑신년 마지막 날에서 올유년 새해 첫날에 이어진 YTN의 '가는 해 오는 해' 특별생방송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 느낌이 있었다. 그중 한 가지는 24시간 뉴스전문매체가 이른바 잘 나가는 대중가수들의 노래를 LIVE로 생방송 한다는 다소 이질감적인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이들 가수 중 안치환씨가 부른 노래가 적잖이 공감을 주었다는 점이다. 안치환씨의 경우 노래도 노래거니와 그 노래의 제목인 '사람

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던지는 화두가 특히 마음에 와 닿았다.

인류의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이고 방송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열린 장이란 점에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지니는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2005년 새해 보도국은 광복 60주년, 한일 수교 40주년이란 굵직한 이슈와 '경제 살리기'란 국가적 대명제 달성을 위해 어느 해 보다 할 일이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또한 지금까지 기울여 왔던 노력의 결실을 하나하나 거둬들이는 중요한 의미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24시간 뉴스전문 매체인 YTN이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으로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매체력 강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지난 해 말 '리서치 앤 리서치'의 조사 결과 YTN이 전 매체에서 신뢰도 5위를 차지한 것과 올유년 첫날 시청률이 하루 전체 평균 1.19%로 1%를 넘어선 것도 좋은 조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 해여야 한다.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영상자료의 ONE SOURCE MULTI USE가 이뤄지는 등 디지털 뉴스룸 구축에 주력해야하고 카메라와 편집기 등 취재 장비 교체에도 점진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

와 함께 인터넷의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기존사원과 신입사원에 대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의 혁신적인 개선 등 YTN의 인터넷 경쟁력 향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최근 노사가 합의해 시행에 들어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이해돼 자칫 일하는 분위기를 거스르는 일은 없어야겠다. 시청률 조사기관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서 보면 방송시장에서 케이블의 점유율이 35%, 지상파가 65%로 나타났다. 이 조사기관은 앞으로 5년 뒤면 방송시장의 점유율은 케이블이 60%, 지상파가 40%로 케이블이 지상파를 앞지르는 역전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해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말아야하고 대비책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YTN 방송 10년, 그 동안 숱한 위기가 따랐지만 모두가 한마음돼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 사심 없이 일하는 좋은 분위기가 YTN을 굳건한 반석위에 올려놓으리라 확신한다. 일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노조위원장 신년사

“YTN 발전을 위해선 노·사는 하나”



김상우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이 노보가 아닌 사보에 신년사를 쓴다 이것을 놓고 사내외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홍보팀으로부터 신년사 부탁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덜컥’ 승낙을 했는데 이후 저는 노조위원장이 사보에 기고하는 게 모양이 좋나 나쁘니 하는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서 괜히 쓰

겠다고 했나 하는 고민에 잠깐 빠지기도 했습니다. CEO도 아닌 제가 회사의 장단기 비전과 발전에 대해 무슨 얘기를 어떻게 얼마만큼 책임 있게 할 수 있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덜컥’ 승낙했을까? 그것은 제 언행의 동인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아마 제 마음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런 철학 때문이라고 스스로 정답을

- 노사 상생의 문화, 생존의 문화 꽃 피워야 -

내려봅니다. 물론 이 철학은 국내 최고의 뉴스전문 채널을 지켜온 YTN 노조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즉 YTN에 노사라는 두 축이 있긴 있는데 YTN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경우 ‘노’도 없고 ‘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YTN 노사’라는 한 목소리만 있는 것이죠. 이 한 목소리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회주의식 일방주의라고 비판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다른 언론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YTN만의 독특한 상생의 노사문화 아니 생존의 노사 문화’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 활짝 꽃이 핀 단계는 아니고 계속 가다듬고 개선시켜야 갈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YTN식 상생의 노사문화, 생존의 노사문화’는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98년 우리는 6개월간 한 푼 못 받는 배고픔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노사를 떠나 모두 한 몸이 돼 ‘YTN의 위기’를 극복해 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만의 독특한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비판의 목소리를 인정한 것처럼 ‘사회주의식 일방주의’ 문화를 빨리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는 ‘노’의 위치를 ‘사’는 ‘사’의 위치를 제대로 찾고 뿌리 내리는 작업에 노사 모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생 문화는 남녀 관계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인정을 받고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존중해야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노사 상생 문화가 꽃이 피면 머지않아 우리 직장 분위기가 이렇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는 것처럼 일하지만 일도 딱 뿌리지게 잘 하는 곳”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이런 일석이조의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나부터 바뀌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하는 얘기처럼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힘을 모으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탈북자 진입 특종기

사무실과 카메라가 있었기에 가능한 특종



베이징 지국 사람들

왼쪽부터 특파원 김태현, 여직원 방계화, 카메라맨 고평

10월 15일 오전 5시 30분, 희미한 가로등이 새벽어둠을 밝히고 있다. 베이징 외교 단지에 위치한 주중 한국 대사관 영사부 건물 북쪽의 개천 변에는 20명의 남녀가 삼삼오오 숨을 죽인 채 모여 있다. YTN 취재팀은 카메라를 대기해 놓고 차 속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쫓고 있다. 20분 뒤 가로등이 일제히 꺼지는 것을 신호로 행동이 개시됐다. 탈북자들이 영사부 북쪽 담장을 넘기 시작한 것이다. 부녀자와 어린이가 넘기에는 버거운 높은 담을 이들은 필사적으로 5-6분 만에 넘어갔다. 창고와 주차장을 지나 또 하나의 담을 넘었다. 우리는 이들이 움직이는 전 과정을 취재하며 화면에 담았다. 필자는 출근한지 닷새 밖에 안 된 카메라맨 고평 씨가 혹 실수할까 우려해 최대한 충분히 찍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숙직 경비원은 정문인 동쪽에만 배치돼 있었고 북쪽에는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큰 장애 없이

영사부 건물 마당까지 진입하는데 성공했지만 다음이 문제였다. 서터 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만 중국 공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 중국 법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불법 입국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 20명은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가 50여분 만에 열린 서터 문을 통해 극적으로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현장을 취재하는 동안 다른 언론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단 카메라맨을 지국 사무실로 들여보냈다. 이제 관건은 본사로 그림을 보내는 것이다. 필자는 이들이 혹시 연행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좀더 현장을 지키면서 다시 본사 국제부로 전화를 걸었다. 베이징 시각으로 6시 7분에 이미 1보를 타전해 놓고 대기 상태에 있던 류재복 차장에게 전화 연결용 원고에 쓸 내용을 전했다. 데스크의 정확한 판단을 거쳐 기사는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었다. 이때 출동한 중국 공안이 현장을 잠시 살핀 뒤 다가와 신원을 물었다. 한국 특파원이라는 대답을 듣고 공안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필자는 재빨리 택시를 잡아타고 지국으로 향했다. 중국 공안에 붙잡힐 경우 후속 기사 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특파원들은 종종 민감한 사안을 취재하다 공안의 조사를 받거나 현장 격리 조치를 당하곤 한다.

1보가 나간 직후부터 국내의 특파원들의 확인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다. 특히 AP와 로이터 TV, 일본 방송사들은 화면촬영 여부를 문의해왔고 곧바로 본사 국제부와 접촉을 취했다. AFP와 AP, 로이터 등 통신사들도 YTN 보도를 인용해 탈북자들의 소식을 타전했다. 허겁지겁 지국에 도착하니 고평 씨가 화면을 보내기 위해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무조건 빨리 화면을 보내야

한다고 독촉했다. FTP 화면송출 시스템은 지국 사무실을 열면서 새로 도입됐다. 인터넷을 이용해 비용을 최소화한 대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최대 단점이다. 특히 국제선이 통제되고 있는 중국은 속도가 더디고 송출이 가끔 끊겨 늘 애간장을 태운다.

이번 취재는 당초 본사 국제부로 온 제보에서 시작됐다. 제보자는 지국으로 몇 차례 전화를 바꿔가며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필자도 핸드폰 번호를 수시로 변경해 최대한 보안을 유지했다. 국제부의 지원과 신속한 기사 처리로 이뤄낸 이번 특종은 또한 베이징 사무실과 카메라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실 지난 6월에도 독일 학교에 진입하는 탈북자를 단독 취재할 기회가 있었으나(당시 제보자는 YTN 지국에 카메라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쉽게도 기사 특종에 그쳤었다. 베이징 지국 개설 이후 크고 작은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방송사 지국 가운데 최소 규모이지만 언제든지 특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10월 말부터 강경으로 선회함에 따라 탈북자 지원 단체와 베이징 특파원단은 팽팽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잇따른 대규모 기획 탈북이 우리의 이익과 통일을 위해 과연 도움이 되느냐 하는 논란 속에 12월 하순 탈북자 수용 정책 개선방안이 나왔다. 그러나 올해도 탈북자들의 한국행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베이징의 특파원들은 이들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것이다.

김태현 베이징 특파원

스페셜 '떠오르는 동북아시아' 취재기

충칭(重慶)에 출장가실분, 현지 명함 빌려주세요!



개혁개방 이후 물밀 듯 밀려오는 서구 문화와 그에 탐닉하고 있는 중국의 젊은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중국인들은 新新人類라 부르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중국의 대표적 인구정책인 1가구 1자녀 정책, 이른바 계획생육 아래 자라난 신세대로 금지옥엽 가족들의 총애를 받으며 자라나 소황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는 이들을 취재하기 위해 비가 추적거리는 날 밤, 충칭의 변화기를 찾았다. 취재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분위기도 살필 겸 섭외를 나선 것이었다. 하바나(중국명 哈瓦那)가 눈에 들어 온 첫 번째 집, 우리는 과감히 들어갔다.

강한 비트와 쏟아지는 조명 아래 우리가 찾던 중국의 소황제들이 술에 취해 음악에 취해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런 장소였다. 중국 취재 경험에서 볼 때 어쩐지 취재가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펍을 나서며 점포 간부진과 인사를 나누고 취재 여부를 문의했더니 관계자는 다음 날 저녁에 가부를 알려주겠다고 한다. 다음 날 오후 5시, 연락 주겠다고던 시간은 지

났지만 아무 연락도 없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우리가 아니지 않은가? 마치 사츠마와리가 된 듯 무조건 돌격뿐이었다.

'중국의 젊은이들이여 6밀리 카메라 세상으로 들어오라!' 잘 안될 것이라던 우리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펍에서는 몇 가지 조건을 붙이고 촬영에 응했다. 한참 촬영을 하고 있던 우리에게 20대 중반 쯤으로 보이는 펍의 사장이 나타났다. 그리고는 오히려 우리에게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린다. 자기들도 모르게 촬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미리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술은 자기가 낸다고 한다. 근데 이걸 어찌나! 우리가 먹을 술은 이미 다 선불로 시켰는데 출장도 끝나가고...없는 돈 모아 모아 왔더니...

밤 12시가 넘는 시각, 우리 식(?)으로 술 몇 잔을 권했더니 이 사장이라는 친구, 오버하기 시작했다. 위층에 올라가면 밤새 하는 중국식 신선로(허구어:火過-샤브샤브 비슷하다) 집이 있는데 거기서 꼭 우리를 대접해야겠다는 거였다. 뭐 조금은 이상한 감이 들긴 했지만 성의를 봐서 우리도 흔쾌히 응했다. 장소는 바뀌고 술병이 마구 들어오더니 사람들의 표정도 술술 변해갔다. 한국식 폭탄 몇 발을 가볍게 맞은 젊은 사장의 취해 가는 모습도 술술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그 역시 충칭에 오면 충칭의 명주는 꼭 마셔야 한다며 혀를 조금은 만 채로 외친다. "1인당~양 한 병 썬이!" 그런데 1인당 한 병이라구? 그 것도 중국의 백주(고량주)를...이 친구들이 미쳤나 싶을 뿐이었다. 어쨌든 한 순배 술잔이 더 돌고 애매한 화기는 계속된다.

이 친구들 멀리서 온 한국 친구들이 너무 맘에 든다고 야단이다. 우리보고 그냥 '평요우(우리말 친구), 평요우' 하며 연신 건배를 제의하고, 마시고 먹고 또 마시

고 먹고...그리고 가만히 보니 친구하기엔 우리가 조금은 손해 보는 나이였는데 "에라 모르겠다. 안될 것 같던 촬영도 오케이 했고 이 순간의 술값까지 낸다고 하는데는 한번 꾸욱 감아주지 뭐!" 하는 심정으로 올라오는 뒀기를 지그시 누르며 참았다. 이 친구들 드디어 술이 완전히 취했나 보다. 사장이란 친구가 화장실을 뺄질나게 왔다 갔다 하더니 우리에게 명함을 돌린다. "앞으로 충칭에 오면 반드시 자기네 가게에 들려야 한다"고, 근데 우리가 또 언제 충칭에 오겠나 싶어 그 자리에서 즉석 제안을 역으로 했다. 우리에게 건네 준 그의 명함에 사인을 부탁하며 "사장의 사인이 담긴 명함을 가지고 오는 미지의 한국 친구들에게 충칭의 멋진 하루 저녁을 선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젊은 사장 친구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기억을 위해 저들에게 우리 YTN 명함도 건넸다.

앞으로 충칭으로 출장 갈 사람은 홍문표 부장과 박민양씨 그리고 제게로 오세요. 사인이 담긴 명함 빌려드립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중국에 뿌려놓은 씨앗, 언젠든 선후배와 동료들을 위해 쓰입니다.

충칭의 명주가 식탁 위에
굴러다니고 누가 아군이
고 누가 적군인지 구별이 안 될 새벽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장의 계산서,
결국 그날 밤 술값은 우리가 냈다. 애고...속쓰러.



박철원(기동취재팀)

스리랑카 지진해일 참사 취재기

폐허 속에 피어나는 훈훈한 인정



왼쪽부터 국제부 임종주, 영상취재부 이동형

2004년 12월 29일 새벽 1시 반, 스리랑카 반다라나이가 국제공항. 후텁지근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홍콩과 방콕을 경유하며 12시간여에 걸쳐 지루하게 이뤄진 열대 기후대로의 공간 이동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새벽 시간 수도 콜롬보 시내에 한적했다. 지진해일 최대 피해지역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의 수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했다. 그것은 곧이어 펼쳐질 참사

의 현장과 극명히 대비됐다.

수도 콜롬보에서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작은 도시 '모라투와'에서 지진해일 피해의 첫 참상을 목격했다. 주거지역은 한마디로 폐허 그 자체였다. 빈민들이 모여 사는 해안가 마을의집들은 대부분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곳도 모두 잃어버린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외국인만 보면 도와달라며 손부터 내밀었다.

모라투와를 시작으로 유럽인들이 동양의 진주라고 부를 만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찬사를 받던 스리랑카 해안의 3분의 2가 이번 지진해일로 완전히 초토화 됐다. 스리랑카 남부 최대의 휴양도시 갈레(Galle)도 남은 것 이라고는 도시를 뒤덮은 쓰레기와 먼지 그리고 악취뿐이었다.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주민들은 대중 옷가지로 입과 코를 가렸다. 이곳에서 한국 철강기업의 딜러로 승승장구하던 27살의 야시트 씨는 5백만 루피, 우리 돈 약 5천만 원어치의 철강 제품을 하루아침에 날려 버렸으며 애통해 했다. 스리랑카

에서는 서민들이 평생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거액이다.

상당수의 배가 파도에 휩쓸려 물속에 가라앉거나 부서졌고, 그물 등 어구도 대부분 못쓰게 됐다. 주민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생계수단마저 송두리째 빼앗기는 2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스리랑카 경제를 지탱해 온 관광산업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혼란과 혼돈 속에도 어김없이 새해는 밝아왔다. 새해 첫날 스리랑카 전역에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흰색 깃발이 나부꼈고, 거리 곳곳의 불상 앞으로 신도들이 모여들었다. 그곳에서 주민들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흘렀다. 취재팀은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스리랑카에 첫 발을 디디던 바로 그 시각, 반다라나이가 국제공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공항은 각 국의 지원 인력과 구호물자로 넘쳐났다. 첫 날의 후텁지근함은 어느덧 사라지고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다. 다만 도움의 손길이 한 순간의 반짝 관심에서 머물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임종주(국제부)

특별기획 '신약' - 제작기

YTN

'지금 주저앉으면, 영원히 못 잡는다'



꼭 1년 전 방송위원회에서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안을 내야 채택될 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맨 처음 내린 결정은 생명, 의학, 제약 분야는 배제하는 것. 2000년 YTN 밀레니엄 특집 '21세기 생명과학 3부작'을 연출하면서 각종 실험 기구로 꽉 찬 실험실과 현미경, 마우스(실험쥐), 흰색 가운데로 대변되는 생명과학 분야를 방송 화면으로 만들어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료전지와 수소, 태양열 등 '차세대 에너지'와 '로봇의 세계'에 대한 기획안을 내기로 했지만, 남이 안하는 것을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생각에 결국 어느 방송사도 제작한 적이 없는 '신약'을 특집 아이템으로 선택했다.

예상은 적중(?)해 YTN 특별기획 3부작 '신약'은 방송위원회 대상 우수기획부문 수상이라는 영광까지 얻으며 힘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난치병 치료의 희망이면서 부작용 문제도 함께 안고 있는 '신약'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섭외를 하는 것이 순탄치 않다는 문제점이 북병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이른바 잘나가는 세계 우수 제약사들은 우리나라가 그들의 큰 소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환자가 줄을 서고 있기에 촬영에 쉽사리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신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각국 언론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약회사들을 설득하는 것도 우는 아이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섭외가 반'이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어렵게 취재 일정을 짜고 드디어 프랑크푸르트로 출발하기 바로 전 날, 그나마 끝까지 섭외에 긍정적이던 세계 3대 제약사가 긴급 이사회 결과 취재를 불허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해 왔을 때는 정말 답답함을 치료해 줄 '신약'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다른 제약사와 대학들과의 일정이 이미 짜여진 터라 무작정 독일 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떠나면서도 과연 한 달 뒤 무엇을 갖고 돌아올 지 정말 눈앞이 깜깜했다. 그 뒤 항공사 실수로 스웨덴 공항으로 트라이포드(카메라 다리)가 제 때 도착하지 않아 사흘간이나 책을 쌓아 카메라를 받쳐놓고 인터뷰를 했던 일과 중국 심천에서

물가 촬영하다 들켜 테이프를 지워야 했던 일 등이 모두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하지만 해외 취재를 떠나기 전 국내 병원에서 만난 백혈병 환자 분이 기자의 손을 꼭 잡으며 언제쯤 확실한 치료제가 나올지 알아봐 달라던 간곡한 당부를 되새기며 불치병 치료의 대안 '신약' 생산의 심장부를 엿볼 수 있었다. 작게는 5천억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신약개발... 하지만 약효가 인정된 신약 한 알이 자동차 5백만 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 신약.

이번 특집에서는 과연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선진국의 전유물인 신약산업의 뒤안길에서만 머무르며 종속적 소비시장으로 전락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수 천 년 동안 약효가 검증된 자생식물에서 신약 후보물질을 찾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 중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세계 최강 IT 기술을 이용해 슈퍼컴 등을 활용하면 백사장에서 비늘 찾기보다 어렵다는 신 물질을 발견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그것이다.

'코끼리를 그리려다 지렁이를 그렸다'는 아쉬움이 짙게 남지만 이번 신약 특집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얻었다. 지금 힘들다고 주저 앉으면 영원히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

한정호 (제작2팀)

동남아시아 출장기

YTN

신왕사천축국전(新往四天祝國典)



해초가 돌아본 나라 천축국은 지금의 인도지만 '신왕사천축국전'이라 이름 붙인 것은 다분히 4개 나라를 비교적 짧은(?) 열흘 만에 난생 처음으로 힘겹게 돌아봤기 때문이다. '아오자이(하얀색 전통 의상)'의 나라 베트남, 소승 불교의 본산 태국, 동남아시아의 맹주 인도네시아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혼재하는 인도! 첫 방문길 이어선지 하나 같이 기억에 남을 만한 나라들이었다. 비록 타지마할 등 이름난 곳은 아예 발길도 머물지 못했지만...

해외방송 'YTN 인터내셔널'에 몸담은 지 9개월이 돼 가는 지금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해외 통신원들과 전화 혹은 이메일로 기사 전송 등 모든 일을 처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교적 소통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으로 본다. 현장에 가서 현지 동포사회에 어떤 뉴스들이 발생하고 또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통신원 역할을 할 것인지 직접 만나고 왔기 때문이다. 통신원들의 직업은 천차만별이다. 미주 쪽은 그나마 방송에 직간접 발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기타 지역에는 유학

생에서 사업가, 가정주부 등 그야말로 '민초' 통신원들이 인터내셔널 방송 제작에 헌신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해외방송팀의 '재외동포뉴스'가 꽤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기사는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교환하고, 영상은 첨단 기술덕에 인터넷 전송 시스템으로, 실제 방송 참여는 화상 전화까지 투입돼 구호에 머물던 쌍방향 실시간 방송(Two-way Real Time)이 어느덧 자연스런 정도가 되고 있다. LA를 필두로 머지않아 뉴욕과 밴쿠버, 런던, 시드니에서도 화상전화를 통해 방송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조만간 기술이 허락해 휴대용까지 활용된다면 그 어느 매체보다 빠른 뉴스를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직접 통신원을 모집하려 간다는 게 경제성이 있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우선 통신원이 없는 지역을 골라 다녔고 또 직접 지원자들을 만나 동포사회 뉴스가 어떤 식으로 기사화 방송되는지, 왜 현지 한인 사회의 소식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뉴스채널이 이들 동포사회를 네트워킹하는 미디어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 않았나 생각한다.

아울러 K도 방송사가 미주지역에 물량공세를 펼쳐 방송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나선 것과 나아가 전세계 한국어 방송 시장을 통째로 넘보고 있다는 정보를 익히 접하고 있던 터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 건은 요약하면, 동남아에는 나라가 많다 보니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중(방송과는 무관한 사업)인 한 사업자에게 방송 독점권을 쥐 인근 11개

나라에 K-월드 사업을 독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드라마 연예니 하는 것은 물론 YTN과는 상충될 게 없지만 마침 현지 퇴근시간대(저녁 7시 무렵)가 한국의 저녁 9시 뉴스 시간대와 맞아 뉴스는 실시간으로 방송될 계획이라고 한다.

어느 YTN에 우호적인 방송 사업가는 뉴스외엔 이 방송(K방송)을 보고 YTN을 봤던 시청자들도 꽤 이탈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신 접시 안테나 설치에 비용이 들긴해도 무료로 볼 수 있던 아리랑과 YTN도 있는데 이 방송(K방송)이 유료라서 불만을 토로하는 동포들도 꽤 있다고 한다. 여하튼 꽤 여럿의 호텔에 묵었는데 아시아권에서 아리랑과 NHK, CCTV 등은 거의 서비스 되고 있었으며 한국인들이 묵을 법한 호텔에선 YTN도 방송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알아볼 요량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워낙 불법이다 보니 위성 사업자는 일체의 만남을 거부했다. 아직까지는 이들 지역에서 한국 지상파가 거의 방송되지 않아선지 YTN의 인지도는 꽤 높아 나라마다 한인회 주변인물 들은 명함을 건네자 친숙한 표정을 지었던게 기억에 남는다.

그간 집중도가 강했던지 꽤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이제 겨우 출발 열달이 돼가는 YTN 인터내셔널!

기왕에 시작된 의미있는 선구적 방송이니만큼 내부적으로는 익히 협조 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위성 임차 등 비용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만큼 외부적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마련돼 초기의 실험적인 차원을 넘어 질적으로도 고품질 방송을 일궈냈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다.

조승희 (해외방송팀)

2004년 최고의 돌발영상 해외서 보는 돌발영상

매일 한편씩 신랄한 시사풍자로 국내외로 YTN의 인기를 높인 돌발영상. 2004년 한 해 동안 방송된 돌발영상 중에서 네티즌이 직접 뽑은 Best 10



1. 탄핵D-DAY '전쟁' 3.12



2. 알고 싶다 3.22



3. 물도 없어! 3.15

4. 재는 빼! 5.3

5. 유세장에서 생긴 일 4.6

6. 180° 11.29

7. "바보들은..." 3.16

8. 정체를 밝혀라! 4.19

9. 신사(神社)와 우표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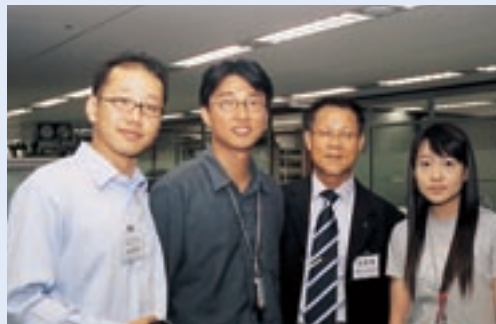
10. 박창달 의원 구하기 6.30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박수를...

서경 172도 남위 14도에 위치해 태양이 제일 늦게 뜨고, 늦게 지는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 아메리칸 사모아. 어린이를 포함한 교포 280여 명이 있는 이곳에서도 YTN을 실시간으로 24시간 보고 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뉴스는 정보의 원천이자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 동안 우리 교포들은 CNN과 다른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20~30여년을 살아온 우리들 중에서 영어를 편하게 이해하며 듣는 교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현지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십수년이 되지만 아직도 가슴속 깊은 곳의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했다. 파스한 봄비에 아지랑이가 아른거린다는 것 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 할 수가 있겠는가?" 라던 어느 교포 분의 말이 생각난다. 그렇다면 YTN은 그렇게 우리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특히, YTN의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돌발영상이 어느 날 갑자기 "현지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십 수년을 살지만 가슴속 깊은 곳의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했다."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국방송 역사에 언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8월 30일 YTN이 주최한 재외동포통신원교육 기간 중 돌발영상 제작팀과 함께한 이현휘 통신원(왼쪽 3번째)

각 당 대변인들의 성명 발표장면의 길 과 속, 야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의 방송국 향의 방문 등 매일매일 '돌발' 되는 뒷얘기를 담아서 시청자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내려 주는 청량음료 같은 돌발영상은 YTN에서 피어났지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한 송이 '뉴스의 아름다운 왕꽃'이라고 불러 주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뉴스퍼레이드 시간에 송경철 앵커가 '돌발영상 담당자께서 휴가 중이라서 프로그램 특성상 제작이 어려워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요지의 설명을 듣고 무척이나 걱정하고 궁금했던 적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일(모처에 불려가는)이 없겠지만 혹시나(?) 했었고, 방대한 테이프를 모니터하고 선택하는 갈등과 과로, 스트레스로 몸이 불편한 것은 아닌지 궁금했었다. 정치 경제 교통 날씨까지 지겹도록 무더웠던 2004년의 여름 내내 그래도 우리들의 가슴을 시원스럽게 풀어내려 준 돌발영상은 YTN의 진실이며, 세계 속의 YTN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확신하며 굳게 믿는다. 돌발영상 담당자와 YTN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한다.

세계에서 공기가 제일 좋은 곳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이현 휘 통신원

사진으로 본 2004년



YTN 대상 수상기

모두의 힘으로 이룬 성과



김승재 (기동취재팀)

우선 큰 상인 YTN 대상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상복이 많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소송 복도 많은 해였다. 동전의 양면처럼 아픔과 기쁨이 공존했던 셈이다. 이 지면을 빌어 그 기억들을 더듬어 본다.

지난해 기억에 남는 보도물들이 몇몇 있다. '보건복지부 전직 고위 간부 수뢰 의혹' 보도와 '강남구청, 탈법 재건축 방조 의혹' 보도, 또 '경찰청, 통계 왜곡해 법개정 의혹' 보도 등이다. 취재와 보도 과정이 쉽지 않았고 모두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복지부 전직 고위 간부 수뢰 의혹 보도는 당초 현 복지부 차관으로 잘못 알고 기사화했다가 나중에 이를 화급히 고치는 소동을 겪어야 했다. 최고 정보기관의 조사 결과와 검찰의 내사 상황, 또 수뢰 현장의

목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묘한 상황의 변수로 현 차관이 아닌 전직 고위 간부가 의혹의 대상자였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당시 보도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차관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를 드린다. 나 스스로도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기사일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복지부 관련 기사와 달리 강남구청과 경찰청 비판 기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꼬집고 언론이 무관심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과감하게 메시지를 가한 기사라고 자평한다. 강남구청 비판 기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재건축의 각종 탈법성을 다뤘고, 경찰청 비판 기사는 경찰청이 무리하게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보도 모두 당사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송의 힘을 빌려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하려 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보도는 뭐니뭐니해도 '부산 신항 등 국책사업 연약지만 배수 공사의 부실' 보도이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실태를 취재하면서 우리나라 혈액관리에 있어 총체적 부실성을 보았듯이 이번 취재에서도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총체적인 부실성

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미 보도를 통해 상당히 드러났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본질을 감추고 호도하는 데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 기득권 계층의 면모가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일련의 성과들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우선 취재 때마다 도움을 아끼지 않은 정의로운 제보자들 - 나는 그저 그들이 가진 의분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대변자 역할을 했을 뿐이다. 특히 올 한 해 골치 아픈 기사들을 꼼꼼히 보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같이 했던 문중선 기동취재팀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 선배는 함께 취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머리를 싸매고 기사 데스킹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쁠 때마다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기동취재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정성없던 내게 팀원들의 도움은 매우 컸다. 또 배수 공사 보도를 위해 국내외 출장을 다니며 몸을 아끼지 않고 촬영에 임해 준 한원상 선배를 비롯한 영상취재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YTN의 매체 파워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 즈음에 YTN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기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YTN이 되는데 일조하는 YTN 맨이 되겠다.

세계속의 YTN - 통신원에게 듣는다 ①

'YTN을 저버릴 수 없는 이유!'



유대식 LA 통신원

다사다난했던 2004년을 뒤로하고 동트기 전부터 울어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데 분주한 닭의 해 200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 한국인은 이제 과거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모르고 팔자타령만 하던 시절을 지나 싫든 좋든 지구촌과 호흡을 같이 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있는 600만 재외동포들은 오늘도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국 대한민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국력이 뒷받침해 주고는 있지만 재외동포들의 땀과 정열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의 경이로운 발전도 그 시기가 한참 늦춰졌을 것이라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 발돋움하던 시절 지구촌 곳곳에서 활동을 펼치던 동포들은 현지 사회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인들의 길잡이 역할은 물론이고 한국을 알리는 홍보 요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만큼 재외동포들의 역할은 본국에서 노력하는 국민들 못지않게 고국의 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노력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구촌은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맞이했고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서 네트워크 통해 시간과 거리가 없는 실사

간 생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방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특히 미주지역은 위성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 시청자들과 동시에 각종 뉴스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과는 낮과 밤이 달라도 태평양 건너 항공편으로 12시간이 넘는 먼 거리에 있는 재외동포들과도 시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24시간 뉴스전문채널인 YTN을 통해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현재 각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YTN 통신원들의 역할을 조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YTN 인터내셔널' 방송이 시작되면서 동포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뉴스를 접하고 있을게 사실입니다.

동포사회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동포사회 소식을 동포들이 서로 접하면서 외국생활에 대한 직간접 소식을 공유해 전에 없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와 달리 한국 내에서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면서 국내 시청자중 재외 동포를 가족이나 친지로 둔 분으로부터 재외동포뉴스가 신선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던 시절에서 전화로 소식을 접하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젠 'YTN 인터내셔널'을 접하면 편지와 전화로 못 다한 소식을 영상과 생생한 통신원의 목소리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실 각 언론사들이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 특파원을 상주시켜 소식을 전하곤 있지만 시청자들의 정보 욕구를 만족시키기엔 뭔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외관상론 세계 곳곳의 동포사회 소식을 전한다하지만 대부분 특파원들은 주재국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뉴스만 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00만 동포들의 소식

은 대부분 뒷전에 밀려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목마름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YTN 인터내셔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활약 중인 해외 통신원들의 역할은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알기로 통신원들은 어떤 금전적인 대가보다 한국에 있는 내 부모와 형제들에게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 국민들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YTN이 한국의 CNN으로 불려지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원들은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영상 한컷 한컷과 기사 한자 한자에 정성을 들여 만들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타 언론사 특파원들을 제치고 여러 번의 특종을 일궈내면서 그들을 역으로 긴장시킨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 역시 시청자들에게 정성을 다해 현지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동포사회는 물론 주류사회에서도 뉴스전문채널 YTN의 존재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알려져 있어 취재시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이 특종을 낚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주 동포들은 YTN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YTN 인터내셔널'을 통해 전 세계 동포사회 소식을 접하면서 해당 국가와의 상거래에 상당한 정보가치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동포사회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어느 언론도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YTN 인터내셔널'은 이제 한국 국민들과 재외동포들이 더없이 가까운 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